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재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공동의회 및 부서장 회의(2/1)
 -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2/3)
 - 성도양육과정 시작(2/11)
 - 예손예배(2/12, 6pm, 새가족 환영실)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1. 25

1월 넷째 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가 되자(사무엘하 8:1-6)

■ Welcome

요즘 제일 즐기고 있는 것(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사무엘하 8:1~6

■ 서론

다윗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간 사람이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6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선언한다.

(6 & 14)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에는 모두 6번의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있다. 이 적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숫자도 많았고, 병기도 강했고, 경험도 풍부했다. 하지만 다윗이 모두 승리하였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가 약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전천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형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새해가 되면 형통을 기도한다.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형통을 만들어내는가? 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태도였고,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의 세 가지의 열심으로 나타났다.

■ 관찰 질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다윗의 세 가지 열심은 무엇인가?

해답 1. 예배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자신을 채움

충만하라(말레)!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통치, 그분의 거하심이다. 사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율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방치된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춤추며 기뻐하였다. 다윗은 법궤를 왕 궁 옆에 모셔두고 찬양대를 세우고 자기가 쓴 시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그렇게 그가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예배드리는 삶에서 나왔다. 충만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양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맹인 전도자, 백사겸 전도사]

장님인 그는 성경을 많이 외워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복음서’였다. 그는 예수를 믿은 뒤 일생 40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가정예배를 하였다. 단지 그가 병원에 입원한 2일을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충만이 체질화되어 산 삶이였다.

❖ 적용 질문 1

- 1)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현금, 시간, 마음(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겸손, 회개 등), 삶의 거룩함 등
- 2) 예배할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을까?

해답 2.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다

정복하라(카바쉬)!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도 이스라엘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상황을 보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하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

(삼상 17: 26)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싸움에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카바쉬(정복하라)’의 정신이다. 카바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선교사 및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 (Eric Liddell)]

영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의 실제 모델인 에릭 리델은, 현대판 ‘다윗의 열심’을 보여준 인물이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는 영국의 유력한 100미터 금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메달 후보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주 종목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라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금메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를 포기한다. 그후에 그는 평일에 열린 400미터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게 된다. 그리고 그는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 적용 질문 2

- 1) 내가 지금 싸우는 문제들(감정 싸움, 인간관계, 경쟁)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해 싸워야 할 나의 ‘영적 전선’(지역, 부분)은 어디입니까?

해답 3.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다스리라(라다)!

다스림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통치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권 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행 13:22)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다.

(왕하 22: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기에 말씀에 비추어 죽이지 않았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한다.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이 흐려진다. 말씀이 흐려지면, 감정이 올라온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다스릴 수 있다.

❖ 적용 질문 3

- 1) 최근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 중, 말씀의 기준이 적용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 2) 한해 말씀이 앞서가게 하기 위해 말씀공부, 훈련에 대한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